상진 스님 "2024년 태고종의 해로 만들자"

태고종, 1월 8일 신년하례 · 시무식
원로회의, 종단 각급 기관장 참석
통알삼배 · 단배식…공로패 등 수여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태고종은 1월 8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3층 법륜사 대불보전에서 갑진년 신년하례법회 및 종단 중앙종무기관 시무식을 봉행했다. 사진은 참석 대중이 기념촬영하는 모습.

태고종이 종도 간 화합과 협력을 통해 2024년 갑진년을 태고종의 해로 만들 것을 다짐했다.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1월 8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3층 법륜사 대불보전에서 갑진년 신년하례법회 및 종단 중앙종무기관 시무식을 봉행했다. 신년하례법회 및 시무식에는 총무원장 상진 스님과 원로회의 의원 대은·지홍 스님을 비롯해 중앙종회의장 시각 스님, 호법원장 혜일 스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구산 스님, 교육원장 재홍 스님, 초심원장 금담 스님, 불교문예원장 지허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현중 스님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법회 참석대중은 불법승 삼보에 신년하례를 올리는 의식인 통알삼배, 상호 단배를 진행하며 종단 발전과 국운융창을 기원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신년사를 통해 종단 발전을 위한 종도들의 화합과 협력을 강조했다. 상진 스님은 "지난해 취임 이후 종도들을 직접 찾아뵈며 종단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지만 부족한 점이 많다"며 "순시를 하며 종도들께 서로 화합해 새로운 태고종을 만들자고 당부한 바 있다. 태고종도가 한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면 종단의 위상은 상승일로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스님은 "현 집행부가 여러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모자란 부분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은 누구든 애종심으로 경책해달라"며 "다만, 종단의 종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을 외부에 알리는 것은 스스로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다. 내부적으로 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으면 태고종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진 스님은 종도들의 변화도 강조했다. 스님은 "저부터 종단 발전을 위해 발로 뛰겠다. 종도 여러분도 종단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며 "2024년 갑진년은 태고종의 해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한마음으로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중앙종회의장 시각 스님은 "지난 집행부가 안정을 기할 수 있었던 것은 현 총무원장 상진 스님의 기여와 노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며 "더 이상 종단을 욕보이는 음해세력이 나올 수 없도록 하자"고 힘줘 말했다.

이어 시각 스님은 "현 집행부가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종도들이 나서서 환경을 조성해주면 희망과 용기가 백배한 한 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호법원장 혜일 스님도 신년사를 통해 "종도들 모두가 뜻을 모아 화합과 전진의 한 해를 만들어가자"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회 참석 대중들은 전국비구니회장 현중 스님이 대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국운융창과 불교중흥을 발원했다. 대중들은 "수 갈래 샛강들이 하나로 모여 큰 강을 이루듯 협력과 상생으로 공생의 세상을 이루게 하시고, 국운이 날로 융창하여 자비와 광명의 불국토를 이루게 해달라"고 부처님 전에 기원했다.

한편, 상진 스님은 이날 신년법회에서 종단발전에 기여한 종도들에게 공로패 및 표창장을 수여했다. 공로패는 △신덕 스님(충북교구 문화국장) △일효 스님(청련사 교무보) △원광 스님(용불사 주지) △월타 스님(관음사 주지) △승원 스님(자은정사 주지) 등 15명이 수상했으며, 표창장은 △정수 스님(인천교구 총무국장) △지근 스님(무심사 주지) △해정 스님(국사암 주지) △무불 스님(청룡사 주지) △무견 스님(기린사 주지) △심일 스님(광주전남 총무국장) △명휴 스님(광주전남 재무국장) △정관 스님(관음사 주지) 등 37명이 받았다.

'천년을 세우다' 불사 기금 전달 잇따라

여수 향일암 · 제주 법화사
자비나눔 · 승려복지기금도



제주 법화사 전달식.



여수 향일암 전달식.

제주 법화사와 여수 향일암이 '천년을 세우다' 불사에 잇따라 정성을 보탰다.

제주 법화사(주지 도성 스님)는 1월 1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천년을 세우다' 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진우 스님은 "법화사는 해상무역의 근거지이자 한중일 무역이 모이는 중요한 곳"이라며 "법화사가 옛 명성을 되찾아 제주 불교의 중심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력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법화사 주지 도성 스님은 "신도들과 십시일반 기금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제주도와 협력해 법화사 복원에 힘쓰겠다"라고 답했다.

김수길 법화사 신도회장도 "총무원장 스님의 지원 덕분에 올해 법화사 전통문화 체험관이 건립될 수 있었다.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같은 날, 여수 향일암 주지 연규 스님(여수불교사암연합회장)과 권보성 (주)선행 대표, 남기웅 만다라 대표, 최용남 운학사 대표 등 불자 기업인들도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천년을 세우다'와 '자비나눔' 기금으로 각각 1000만원씩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정기명 여수시장도 배석했다.

진우 스님은 "불자들 동참 덕분에 열암곡 부처님을 모시는 불사가 올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불사에 원력을 모아줘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정기명 여수시장에게 "여수의 명소 향일암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꿈꾸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달라"고 했다.

연규 스님은 "총무원장 스님을 초청해 법문을 전하는 자리를 만들고 싶다. 여수 불교 중흥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향일암 방문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에서 감사 소임을 맡고 있는 이상근 일신회계법인 회계사가 스님들의 노후복지 향상을 위해 승려복지기금 1000만원을 보시했다. 이 회계사는 "25년여간 종단 주요 기관과 관련된 회계 업무를 맡아왔다. 종단을 위해 조금이나마 회향하고 싶어 기금을 내게 됐다. 앞으로도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총지종 제13대 종령에 지성 대종사

1월 11일 제152회 승단총회서 만장일치로 추대



불교총지종 제13대 종령에 지성 대종사〈사진〉가 추대됐다.

불교총지종은 1월 11일 서울 역삼동 통리원에서 제152회 승단총회를 개최하고 만장일치로 지성 대종사를 종령에 추대했다. 신임 종령 지성 대종사의 임기는 2월 17일부터 6년간이다.

제13대 종령으로 추대된 지성 대종사는 1946년 경북 포항에서 출생했으며, 총지종 창종 당시부터 종단과 인연을 맺고 입교해 종조 원정 대성사로부터 직접 밀교법과 가르침을 받았다.

1993년 3월 중앙교육원 아사리 과정 수료 후 전법관정수계를 받고 승직에 올랐다. 동년 정혜서원당(현 인천 시법사) 주교와 통리원 재단사무국장을 시작으로 재무부장, 총무부장, 총지종유지재단, 시회복지재단 이사, 사감원장에 이어 2010년도 불교총지종 제16대 통리원장을 역임했다. 이후에도 지성 대종사는 교화와 종단 발전에 용맹정진 해오다 2016년 기로원에 진원했다. 신중일 기자

조계종 총무원 1원 체제 변화 공감

미래특위, 1월 8일 첫 회의서 간사 성원 스님 선출

현행 총무원·교육원·포교원 3원 체제인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을 총무원 중심 1원 체제로 변경하는 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단미래대비를 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 심우 스님, 이하 미래특위)'는 1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성원 스님을 간사로 선출했다. 위원회는 심우 스님을 비롯해 중앙종회의원 선광·삼조·일화·만당·성원·현무·진각(해인사)·정운 스님과 총무원 기획실장 우봉 스님, 사회부장 도심 스님, 일감 스님, 김봉석 변호사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미래특위에 따르면 회의에선 현행 3원 체제인 중앙종무기관을 총무원 중심의 1원 체제로 변경하는 데 대다수 위원이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행정기관 조직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인 만큼 총무원이 초안을 마련한 이후 미래특위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총무원은 다음 회의까지 3원 통합안을 준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섭 기자

"세계비구니평화대회 원만개최 기원"

진우 스님, 대만비구니회 예방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1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대만불교비구니협진회 임원 예방을 받고 오는 3월 8일 대만서 열리는 세계비구니평화대회의 원만 개최를 기원했다.

협진회 이사장 견인 스님은 진우 스님에게 초청장을 전달하며 "전 세계 18개 국가 비구니스님들이 한 곳에 모이는 국제적인 행사"라고 소개하고 "첫날 행사에서는 유엔 세계여성의날을 기념해 공로자를 표창하는 만큼 총무원장 스님이 참석, 격려해주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진우 스님은 "대만비구니협진회 스님들이 뜻깊은 일을 하고 여러 좋은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익히 들어 알고 있다"면서 "3월 8일 대만에서 열리는 행사도 원만히 회향하길 바란다. 실무진과 논의해 참석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해보겠다"고 화답했다.

임은호 기자

40년 전통의 불교전문교육기관
동방불교대학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

모집인원 및 편제

학 과	모집인원	편 제	비 고
불교학과	00명	2년제	불교교리·기초의식
범패학과	00명	2년제	상용의식·상주권공

지원기간 2023. 12. 01 (금) ~ 2024. 02. 08 (목)

원서 교부 및 접수
원서교부 : 동방불교대학 홈페이지 (www.dongbang.org)
학생광장 > 공지사항 > 2024년도 신입생 모집 공고 참조
접수 방법 : e-mail, Fax, 우편접수 가능

입학상담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 02-745-2030 (010-3089-9983)

주소 : 우) 03062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길 31
e-mail : dongbang2030@naver.com Fax: 02-745-2030

